

##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새로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제막과 야영소준공식이 5월 2일 성대히 진행되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었다.

순간 후대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의 세력사를 수놓으시며 사회주의문명강국의 휘황찬란한 래일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더초올리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준공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준공식에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이 제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제막을 당 책임일꾼들과 군대, 야영소의 일꾼들이 하였다.

하늘땅을 뒤흔들며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준공식장상공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와 전체 조선소년단원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소년단 강원도, 시, 군 연합단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도내 당, 정권기관, 청년동맹, 대학,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의 통성변명과 인민의 행복,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끝없는 로고와 헌신의 자욱을 새겨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되새기며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최종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제막 및 준공사를 하였다.

준공식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 목청껏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듯이 손을 저어주시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을 축하하는 체육문화행사가 2일 현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동해명승 송도원의 자연풍치와 어울리게 훌륭히 건설된 야외운동장에서는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가 진행되

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었다.

전체 관람자들과 선수들은 후대들에게 물려줄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인 세계일류급의 과외문화생활기지를 마련해주시고 대해같은 은정을 거둬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기시작부터 맹활약을 하던 함경남도팀의 10번 박충진선수가 후반전 10분경 보기 좋은 득점으로 첫 골문을 열었다.

많은 점수를 회복하기 위해 상대팀의 골문을 무단히 위협하던 평안남도팀의 5번 김권성선수가 후반전 23분경에 마침내 동점골을 넣어 경기는 더욱 치열해졌다.

나이는 어렵도 능숙한 공물기와 집단주의정신, 훌륭한 경기도덕품성을 발휘하는 선수들에게 관람자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후반전마감까지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아 승부차기가 진행되었다.

결국 경기에서는 함경남도팀이 평안남도팀을 5:4로 이겼다.

이어 시상이 있었다.

경기가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경기장의 하늘가에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 겨워 목청껏 환호를 울리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랑림 선수들과 감독들, 심판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그들을 고무해주시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또한 눈물을 흘리며 격정의 환호를 울리는 경기보장성원들까지 몸가까이 부르시어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한량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이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국제진선소년회관에서는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진행되었다.

녀성중창 《소년단행진곡》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랐다.

세월의 준비를 다 맞으시며 새 세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앞날의 주인공들로 억세계 키워주시고 조국의 통성변명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도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관의 세계를 되새겨주는 명곡들인 녀성3중창 《장군님과 아이들》, 녀성2중창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 녀성독창 《우리 아버지》는 관람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우리 학생소년들이 사랑하는 아동영화들의 주제가로 동심에 맞게 형성한 경음악과 노래편곡 《아동영화노래음악》과 《만화영화세계》는 관람자들을 동화의 세계로 이끌어가면서 축하공연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이 나라 부모들의 사랑을 모두 합쳐도 비기지 못할 은혜로운 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행복넘치는 우리 어린이들의 밝은 앞날을 환희로운 음악세계에 담아 녀성중창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국의 품속에서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행복이 끝없이 펼쳐나는 사회주의문명강국의 휘황한 래일을 생동하게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에 이어 진행된 축포발사는 야영소준공을 축하하는 체육문화행사의 절정을 이루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연관람자들과 함께 야영소구내에 나오시자 장쾌한 축포성이 천지를 진감하는 속에 야영소의 하늘가에 축포들이 터져올라 전갈래만갈래의 불보라로 신비경을 펼쳐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 우리 인민과 후대들의 밝은 미래가 앞당겨지고 있음을 확신하듯 축포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충천하는 화광은 바다가풍치와 조화되어 절정을 펼친 현대적인 야영각들을 아름답게 비쳤다.

축포발사가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 겨워 목청껏 환호를 울리는 전체 참가자들에게 따듯이 손을 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최근 푸른 파도 넘실대는 동해의 기슭에서는 학생소년들이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게 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개건의 첫삽을 박은것이 엿그제 같은데 벌써 세상에 돌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신문과 TV방송으로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낸다.

준공을 앞둔 야영소를 찾아가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당의 후대관이 비친 멋쟁이건축물, 아이들의 호텔,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 2일에는 성대하게 진행된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었다.

푸른 바다와 드넓은 백사장, 소나무숲이 우거진 명당자리에 야영1각, 야영2각이 멋들어지게 건설되고 큰 회관과 야외운동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야외물놀이장, 야외활쓰기장을 비롯하여 야영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이 다 갖추어져있고 호수를 중심으로 공원까지 조성되어 어른들도 다시 어린이가 되어 야영생활을 해보았으면 하며 저마다 감탄을 터치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야말로 새 세대들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미래사상, 후대사상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그이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그야말로 세상에 돌도 없는 아이들의 호텔, 아이들의 궁전이다.

세상에는 호화스러운 호텔들이 적지 않고 세계의 곳곳에 있는 궁전 또한 가지각색이다. 사치함과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 호텔들, 국사를 흔하거나 역사유적유물로 이름난 궁전들은 그 얼마나

# 동해기슭에 솟아난 아이들의 궁전

많은가. 그러나 그 많은 호텔들과 궁전들을 보아도 아이들을 위해 훌륭하고 웅장하게 일떠선 호텔이나 궁전은 없다.

아이들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이처럼 세상에 제일 멋있고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주고 안겨주는 나라는 오직 공화국뿐이다.

지난 세기 60년대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평양의 제일종

은 명당자리에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지어주신 이야기는 오늘날도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고 있다.

평양의 중심부에 온 나라가 다 바라보게 평양학생소년궁전이 웅장하게 일떠서던 그 나날 아버지수령님께서 내가 오늘 어린이방송을 들었는데 아이들이 《노고 아름다운 궁전을 수령님

이 지어주신다네...》하고 노래를 불렀다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후대들을 위해서, 꽃봉오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가고 하시며 어서 빨리 궁전을 잘 지어주라고 하시었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후대들을 위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어린이들을 위한 궁전과 학생소년회관을 번

듯하게 꾸려주신 아버지수령님 이시었다.

아버이수령님 그대로 온 나라 아이들을 사랑의 한복에 안아주시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평양의 만경대지구에 일떠서는 학생소년궁전이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궁전으로 일떠서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평양시도향산동

산소년단야영소를 훌륭히 개건할 데 대해 이르시고 몸소 설계안까지 하나하나 보아주시었다.

그런데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사랑의 호텔, 궁전을 번듯하게 일떠세워주시었다.

아이들을 위해 최후의 옥류아동병원도 세워주시고 도처에 현 대적인 물놀이장들과 유희오락시

설들도 건설하도록 하신 원수님 이시다. 그이께서는 밤마다 부모들의 따뜻한 품을 더듬어찾을 부모모임은 고아들의 친부모가 되시여 당에서 품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평양시의 옥아원, 예육원을 새로 마련해주시겠다는 친부모도 주지 못할 따뜻한 정을 다 기울여주고계신다.

세상에 자랑할만한 한 야영소를 아이들에게 안겨주게 되신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준공을 앞둔 그날 이렇게 야영소를 개건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에 혁명을 한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정녕 그이의 후대사랑은 동해처럼 넓고넓은 친아버지의 사랑이다.

지금 세상을 둘러보면 그칠새 없는 내전과 전쟁으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고아로 버려지며 막돌처럼 천대받는 비극이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다.

그 누구도 보호해줄수 없고 품어줄수도 지켜줄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사랑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이 지구상엔 얼마나 많은가. 남조선에서는 대형러객선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되어 거기에 타고있던 수백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구원의 손길 한번 못 받고 모두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변이 벌어졌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아래 아이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고 병치료를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동해기슭에 솟아난 아름다운 아이들의 궁전은 미래를 사랑하고 중시하는 공화국의 앞날은 더없이 밝고 창창하다는것을 보여 주며 행복의 활무대로 아이들을 손저어부르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철



동해와 남해는 다같이 조선반도를 둘러싼 바다이다. 동해의 물이 흘러 남해에 이르고 남해의 물결이 동해에 굽어치기도 한다. 민족이 갈라져 바다에도 경계선이 생겨난지 70년을 가까이 하는 지금 한지맥으로 이어진 조선동해와 남해의 기슭에서는 거의 같은 시각에 서로 다른 현실이 펼쳐져 세인의 시선을 모으고있다.

한쪽에서는 대형러객선이 침몰하여 그안에 타고있던 수백명의 아이들이 무리죽음을 당하였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아이들을 위한 세상에 없는 사랑의 궁전이 솟아나 아이들의 기쁨과 행복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다.

세상에서 꽃망울처럼 아름답고 소년하고 깨끗한것이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가정과 사회의 기쁨이고 미래이다. 그래서 북녘의 아이들도 귀하고 남녘의 아이들도 소중하다. 그러나 그 운명은 서로 달랐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5월 2일 북녘의 항공문화도시 원산시에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특별히 한껏 깃을 편 품치수려한 동해명승지의 훌륭한 야영소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성대한 준공식을 진행하고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도 관람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 결승경기도 관람하면서 학생소년들은 세상에 부럼없는 자기들의 행복상을 마음껏 펼쳐보이였다.

다채로운 축하행사들중에서도 마감을 진행된 축하발사는 학생소년들의 기쁨을 최절정으로 이끌어갔다. 항공도시의 밤하늘을 분홍빛, 주홍빛, 초록빛으로 물들이는 눈부신 불보라들은 부럼없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자라는 공화국 학생소

## 동해와 남해에 펼쳐진 판이한 두 현실을 보고

년들의 아름다운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온 나라 아이들의 마음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달려가고있다.

회관의 주상과 등산지식보급실, 전자오락실, 솜씨전람실과 실내수영장, 야외물놀이장을 비롯하여 수족관과 로리실습실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나 손색없이 꾸려진 황홀한 야영소는 어서 오라 아이들을 손저어 부르고있다. 아이들만이 아니다. 너무나도 화려하게 꾸려진 아이들의 궁전을 TV와 신문으로 보면서 온 나라 인민이 감탄을 터뜨리고있으며 아이로 다시 태어날수만 있다면 나도 야영을 가보고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동해기슭에 출렁이는 웃음바다가 펼쳐지고 있을 때 남조선의 진도알바다기슭에서는 최악의 대참사가 빚어져 온 남녘이 눈물바다가 되고 절망과 비애, 분노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러객선의 침몰과 함께 바다에 빠져 죽은 수백명의 사람들중 그 대다수가 나이 어린 고등학교학생들이다. 그들은 제주도도 수락여행을 가던 학생들이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운명의 검은 파도가 그들을 집어삼켰다. 그들은 배와 함께 바다에 수장될 때 소생의 기대를 누구나 가지고있었다. 그래서

하직 하직 바다속에서 부르짖었고 손가락이 터지고 부러지도록 배의 창문을 허비고 두드려댔다. 그러나 살아서 부모의 품에 안긴 아이

는 단 한명도 없었다. 배가 침몰하는 속에서 《엄마 사랑해》라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바다밑에 수장된 나이 어린 고등학생의 그 울부짖음과 《우리 아이들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울분을 터뜨리는 수많은 부모들의 피절은 웨치므로 지금 진도바다가기슭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이 끔찍한 참사는 자연의 광란이 빚어낸 우연적인 재난이 아니라 철저한 인재였다. 마음만 먹고 달려붙으면 능히 살릴수 있는 아이들이 었건만 구원의 손길이 없었어 그들은 바다속에서 처절히 죽어야 했다. 돈밖에 모르는 세상, 사람의 생명보다 회사의 리윤만을 앞세우는 반인륜사학, 집권층의 무능과 반민권적정치가 낳은 집단타살이였다.

동해기슭과 남해기슭에서 펼쳐진 아이들의 서로 다른 두 운명, 그것은 북과 남의 판이한 두 정치의 반영이다.

공화국에서는 정치가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있다. 왕 속에서 아이들이는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고있다.

이번에 세상에 돌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 아이들의 호텔로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후대사랑, 미래 사랑을 천품으로 체현하신 김정은원수님의 한없이 뜨거우 사랑의 결정체이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현대적으로 개건할것을 받기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개건공사를 강력히 인민군대 건설력량을 파견하시고 제기 되는 자재를 비롯한 모든 문

의 바다, 뜨거운 정의 바다였다.

그 바다속에 풍덩 뛰어들어 마음껏 재능의 나래를 펼치고 세상에 돌도 없는 자기들의 행복상을 한껏 과시하고있는 공화국의 학생소년들이다.

사람으로 인간을 키우고 인간의 꿈을 꽃피워주는 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이 가닿는 기쁨은 이렇듯 행복과 기쁨의 기슭인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의 모든 학생소년들은 자기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는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을 때마다 그 궁지와 자랑을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로 무척껏 터치고있다.

송도원에 펼쳐진 황홀경과 무고한 어린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진도알바다의 《세월》호참사는 북과 남의 어디가 천당이고 지옥이며 민족의 밝은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바다는 넓어도 파도는 오직 기슭으로만 달려오듯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안겨줄 품은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의 품이다.

절세위인을 모시여 공화국의 미래, 민족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휘황찬란한것이다.

## 승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치며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의 일이다.

태평양서부지역에서는 급작스러운 기류변동으로 강한 태풍이 일었고 그 수역을 통과하던 수십척이나 되는 1만급이상의 선박들이 침몰했다. 그 참사에 대해 일본의 한 해운학전문가는 태풍중심권을 벗어난 지점인 남조선근해에서만도 740여척의 배들이 항망없이 조적을 감추었다고 실상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바로 그날에 공화국의 러객선 《삼지연》호는 태풍우역을 유유히 벗어나 무사히 항행하는 기적을 세웠다. 당시 조선동해의 한복판을 항해하던 《삼지연》호는 뜻밖에 태풍중심권에 들게 됐고 선원들은 객실들의 파손과 침수상황에 대해 조난신호를 띄웠다.

해당 관제부문을 통해 그 사실을 아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배에 몇명이 타고있고 항로위치는 어디인가 등 자세히 알아보셨다. 배에는 조선대학교 졸업반 학생대표단원들과 조청모범반일군단기조국방문단원들을 비롯한 근 400명의 재일동포들이 랐으며 원산동쪽 150mile해상에 있다는 상황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즉시 《삼지연》호 구출을 위한 비상조치를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신속히 구조전투지휘부가 조직됐고 인민군비행기와 함정들이 출동했으며 료해운부문에서는 2만t급대형집배에 의뢰된 구조구명기체들을 실어 태풍지역으로 급조했다. 한편으로는 《삼지연》호 설계진주자들이 배의 기술상태를 놓고 침몰을 막기 위한 방도를 모색했다.

사고현장에는 초당 수십m의 속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쳤고 파도 또한 그 높이를

## 《죽음의 날》에 구원된 러객선

가능할수 없을 정도로 세웠다.

시시각각 러객선구조를 놓고 마음을 놓지 못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해당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주셨다.

배가 나간다고 해도 파도에 시간당 5mile밖에 전진할수 없기때문에 배가 나가기 전에 침몰할수 있다. 중요한것은 배의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투쟁을 잘하는 것이다. 선원들과 총련조국방문단선원들이 총동원하여 자체로 견지하기 위한 투쟁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가 서있는것이 곤란하니가 가능하면 우리쪽으로 전진시켜야 한다. 서로 겁을 먹고 당황해할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배의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을 잘할수 없다. 그러므로 배의 지휘를 침착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신심을 가지고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이의 가르치심은 곧 《삼지연》호에 전달됐다. 선원들과 전체 승객들은 객실 앞부분에 쓸어드는 물을 아래부분에 몰아넣고 해수펌프와 소방펌프로 퍼냈고 배는 앞으로 전진했다. 그사이 하늘길로, 바다길로 공군비행기들과 해군함정들이 《삼지연》호 가까이로 접근했다.

드디어 배는 비행기와 군함들의 호위를 받으며 귀항했고 닻을 내리게 됐다.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덕망과 림기응변의 명철한 구조작전에 의해 세계해운력사에 《죽음의 날》로 기록된 1980년 10월 26일날에 《삼지연》호는 기적적으로 구원됐던것이다.

본사기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을 축하하여 진행된 축포발사의 한 장면

내 나이 올해 60이 되어 온다. 10여년간 여기 예육원에서 일해오면서 세상에 부럼없이 무럭무럭 자라있고있는 원아들을 볼 때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실시되고있는 사회주의제도의 시책에 대해 고마움을 금할수 없다.

어린이보육교양법만 보아도 그렇다. 38년전인 주대 65(1976)년 4월 29일 공화국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채택되었다. 그후 1999년 3월 4일에 수정보충됨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학생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말아키우는 사회주의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었다.

공화국의 어린이보육교양제도는 아이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관과 미래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의 결정체이다.

위대한 대원수님 들

많은 학령전어린이들을 위해 국가가 탁아소와 유치원을 세워주고 식료품값을 비롯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나라, 특히 부모모임은 아이들과 세상동일체를 육아원과 예육원에서 키워주고 여러명의 어린이를 키우는 여성, 한꺼번에 돌이상의 어린이를 낳아키우는 여성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차려지는 나라는 공화국 밖에 없다.

얼마전 신문에 남조선에서

국가가 어린이들을 보살펴주는 나라

을 밝고 바르게 잘 키우자고, 부모없는 실음을 모르고 튼튼하게 자라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자고 뜨거운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던 그이의 숭고한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지금도 원아들이 즐겨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빛같은 미소가 하늘가득 어리고 푸짐한 식량과 따뜻한 보금자리,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서 선결조건이라고, 품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평양시의 옥아원, 예육원을 새로 마련해 주겠다고 사랑의 약속을 하시던 친근하신 음성이가슴가득 울려오는듯싶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유일한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마련되어있는 나라는 없다.

국가에 보살핌속에 밝게 웃으며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나는 내 조국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게 된다.

평양예육원 원장 최승란

원수님의 하나

가업정년 《양육비》 부담에 있다고 한다.

원수님의 하나

가업정년 《양육비》 부담에 있다고 한다.

원수님의 하나

가업정년 《양육비》 부담에 있다고 한다.

원수님의 하나

원수님의 하나

가업정년 《양육비》 부담에 있다고 한다.

원수님의 하나

가업정년 《양육비》 부담에 있다고 한다.

원수님의 하나

가업정년 《양육비》 부담에 있다고 한다.

원수님의 하나

가업정년 《양육비》 부담에 있다고 한다.

원수님의 하나

가업정년 《양육비》 부담에 있다고 한다.

원수님의 하나

#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을 해부함

최근 남조선에서는 해피하기 그지없는 그 무슨 《통일대박》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나돌고있다.

박근혜는 말할마다 《통일대박》을 운운하면서 《통일대박》니, 《통일준비위원회구성》이니 뭐니 하고 부산을 퍼우는가 하면 주변나라들과 멀리 유럽에 가서까지 《통일대박》을 광고하고있다.

박근혜의 치마바람에 휘둘러 그걸의 괴뢰시정배들과 괴뢰언론들들도 입을 모아 《통일대박》을 외위하며 그 무슨 연구니 뭐니 하는 놀음을 벌리고있다.

하지만 남조선민심과 내외여론은 리명박체당이 한때 《통일항아리》라는 것을 들고나와 사람들을 웃기더니 이번에는 웬 《통일대박》인가 하면서 조소를 금지 못하고있다.

통일에 대해 아무런 일가견도 없고 문외한인 박근혜인즉 리명박처럼 무엇을 하나 내들이 하겠는데 《통일항아리》라고 하는 멋적이고 하여 《통일대박》이라는것을 공명정대 모양이다.

박근혜와 그 어용나팔수들이 《통일대박》에 대해 광고하는것을 보면 똑똑한 론리나 내용도 없고 그저 통일이 리득을 가져다주므로 통일준비를 다그쳐야 한다는 식의 허망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이루어지면 좋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그러나 박근혜체당의 주먹구구식 손익계산법을 보면 너무도 유치하고 황당무계하여 입이 쓰거울 정도이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상식이 하의 극히 저속하고 천박한것이며 서론할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괴뢰배당이 그것을 간판으로 내걸고 통일을 바라는 민심과 내외여론을 심히 우롱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반통일적, 반민족적정세를 해부하여 만천하에 고발하지 않을수 없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무엇보다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엄중히 외국, 변질시키고 거역의 통일념원을 모독하는 극악한 반통일론이다.

원래 《대박》이란 말은 일하기 싫어하고 공짜를 좋아하는 건달맹이들과 사기꾼들, 장사치들이 투전판에서 써온 《칭제》, 《행운》을 뜻하는 속어로서 우리 말 사전에는 애당초 없고 남조선사전에는 흥행에 성공하여 큰 수입을 얻는 일이라고 되어있다.

박근혜가 이 유치하기 그지없는 《대박》이라는 쓰레기같은 낱말을 통일이 라는 신성한 이름에 갖다붙인것자체가 우매하다고 할지, 아둔하다고 할지 하여튼 기가 막힌 일이다.

더구나 그 해피한 용어에는 돈으로 모든것을 유혹하고 돈이면 만사가 다 된다는 황금만능의 저열하고도 추악한 속물적근성이 진하게 배여있다.

괴뢰배당은 그런 속된 론리로서 저들의 불순한 《체제통일》망상에 대한 관심을 끌고보려고 하고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경악할 일이 아닐수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조국통일은 외세를 몰아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며 나라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위업이다.

여기서 최우선적이면서 중핵적인 문제는 민족분열의 원흉이고 조국통일의 최대의 장애물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것이다.

나라가 통일되면 자주독립국가의 존엄을 민방에 떨치게 될것이며 우리 민족은 공동의 무궁번영을 누리게 될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를 위해 수많은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올해에도 우리는 력사적인 신년사를 통하여 조국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현실적이며 실천적의가 큰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최대의 성의와 아량을 보이겠다.

그러나 괴뢰배당은 그에 등을 돌려대면서 분열과 대결책동에 광분하였으며 그로 하여 내외의 비난이 높아가자 여론을 기만하기 위해 《통일대박론》을 들고나온것이다.

박근혜체당이 《통일대박론》을 내든것은 그 무슨 《통일비용》이니 뭐니 하면서 《통일세》를 긁어모고 《통일항아리》에 모금을 하는 광대놀음을 벌리다가 돈을 건어들이는 통일이 필요없다는 《통일무용론》이 대두되어 고립배척당한 리명박체당의 교훈으로부터 출발한것이기도 하다.

물론 《통일대박》이란 말은 지능수가 2MB인 리명박보다 못한 박근혜가 제 머리로 생각해낸것이 아니라 어느 한 친미괴뢰보수학자가 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에서 도용한것이다.

박근혜와 시복종교들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대통령은 박근혜》라는 말의 략자와 같은 《대박》이라는 표현이 신봉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선거유세에서 즐겨 써먹었으며 《정권》을 쥐게 되자 《통일대박》을 대북정책의 간판으로 내리게 되었다.

그것이 얼마나 해피망측한 표현이었으면 외신들이 영어로 어떻게 표기해야 할지 몰라 이구동성으로 물음을 제

기자 청와대가 나서서 《노다지》, 《행운》이라는 뜻으로 쓰면 된다고 설명하는 추태까지 부렸겠는가.

나라가 분열되어 반세기도 훨씬 지나 근 70년이 되어오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한것도 가슴아프고 창피한 일인데 조국통일문제의 근본성격을 부정하고 그것을 한갓 장사치들의 흥정물로, 투전판의 도박놀음으로 묘사한것은 겨레의 통일념원에 대한 악랄한 우롱이고 모욕이다.

박근혜가 우리 민족의 숙원인 성스러운 조국통일문제를 《통일대박》이라는 말로 비하하고 중상모독한것은 그가 얼마나 추악한 반역아, 폐물인가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또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 《체제통일》을 추구하는 흉악한 반통일대결론이다.

박근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을 떠벌이면서 《체제통일》망상을 드러내놓았다.

일마침 오바마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박근혜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을 제창하였으며 그에 대해 상건과 견해 일치점을 보았다고 크게 떠벌었다.

박근혜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것을 보아도 우리를 변화시켜 《체제통일》망상을 실현해보겠다는것이 이른바 《드레즈덴구상》이라는것 역시 먹고 먹히우는 《도이칠란드식통일》을 모델로 하여 《체제통일》을 하겠다는것이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이처럼 《미국식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과 《도이칠란드식통일》을 전제로 한 불순한 《체제통일》망상을 《대박》이라는 보자기로 감싼것이다. 《체제통일》은 곧 《체제대결》을 의미한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고 서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체제통일을 주장하는것은 동족끼리 전연 대결하자는것이 결국은 평화통일을 부정하는것이다.

우리는 온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량방체통일방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시종일관 노력하고있다.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체제를 그대로 두고 민족적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량방체통일밖에 없다.

우리가 체제통일을 마음먹었다면 이미 실현한지도 오랬으며 그럴 기회도 여러번 있었다.

오랜 기간 청와대안방에서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살아온 박근혜가 그것을 알거나 하고 《체제통일》을 입에 올리는가 하는것이다.

박근혜가 그 무슨 《금변사래론》과 《봉괴론》의 개공에 떠들 《통일대박론》을 내리고있는것은 더욱 가스로운 일이다.

박근혜는 《통일대박》을 떠들면서 《북이 어떻게 될것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모든 가능성을 남두에 두고 대비하자》고 떠들고 뉘웠다.

그의 오른팔격인 괴뢰정보원 원장 남재준은 한수 더 떠서 《2015년에는 대한민국체제로 통일되어있을것》이라는 나팔까지 불어냈다.

그것은 신통히 《통일은 도적처럼 온다》고 하면서 《금변사래》개공에 사로잡혀 대결에 미쳐날뛰다가 온갖 오명을 다 쓰고 몰러난 리명박역도를 방불케 한다.

《북금변사래론》과 《북봉괴론》은 오래전부터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부질없이 떠들어대다가 우리의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고 우리 공화국이 강위력한 핵보유국으로까지 되는 바람에 풍자박산나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것이다.

오늘 봉괴와 《금변사래》에 직면하고있는것은 남조선이다.

지금 괴뢰배당은 총체적괴뢰위기에 처해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번 배침물사고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침몰》로 규탄하면서 《정권퇴진》을 강력히 요구해내고있다.

온 남조선민심이 초상집이 되고 림종의 운명에 처해있는 박근혜가 허망한 《북봉괴론》개공을 무면서 그 무슨 《대박》이니 뭐니 하는것이야말로 얼마나 가관인가.

더우기 민심과 민족의 저주의 대상으로 되어 제멸을 다 산 극악한 살인마집단, 반역의 무리들이 통일을 《주도》 하겠다는것은 가마속의 삶은 소대거리도 양친대소할 회비극이다.

박근혜체당은 통일을 입에 올릴 체면도 자격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또한 동족의 머리에 핵제앙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론이다.

박근혜체당은 《통일대박론》의 막뒤에서 대결과 전쟁소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박근혜는 《한반도통일시대준비》니, 《튼튼한 안보태세》니, 《한미동맹강화》니 뭐니 하면서 정초부터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며 화약내풍기는 전쟁연습에 미쳐들어갔다.

괴뢰배당은 2월말부터 수개월동안

안이나 미국과 함께 《키 리졸브》니, 《독수리》니, 《맥스 쉐더》니 하는 북침전쟁연습을 육지와 바다, 공중에서 력대 최대규모로 벌려놓았는가 하면 도발은 저들이 저지르면서 그에 대응한 우리의 자위적조치들에 대해 무례하고 《도발》이니, 《위협》이니 걸고들며 《보복》과 《응징》을 운운하면서 정세를 전쟁절경으로 몰아갔다.

박근혜는 특히 온 남조선민심이 력적선침물사고로 아쉬라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괴수 오바마를 끌어들이 반공화국핵소동을 벌려놓다못해 《전시작전권》 전환제언기를 애걸하고 위험천만한 북침전쟁각본인 《국지도발공동대미계획》과 《맞춤형억제전략》실현을 위한 공보결락을 일출 강화하였다.

박근혜가 집권한 후 남조선에 더 많은 미국핵무기들이 쓸어들어 북침전쟁책동이 한층 위험하게 벌어졌으며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도박판관이 최절정에 달하였다.

박근혜는 오바마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남포기 무함할 정도로 동족을 악랄하게 쏘아대고있다.

괴뢰배당은 우리가 미사일시험 한번해도 숨이 넘어갈듯 소란을 퍼우면서 미국에 대고 북을 어찌대랴고 애걸복걸 하는가 하면 우리의 4차 핵시험에 대해서는 당장 지구가 꺼져나가는것처럼 버림을 올리면서 상건의 품에 더 깊숙이 기어들며 《강력한 응징》과 《바다 높은 강도의 제재》를 천명했다.

우리의 병진로선에 대해 《실현불가능》이니 뭐니 하며 가장 괴대를 돌리거나 시비중상한것도 박근혜이며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가장 악랄하게 반대해나선것도 괴뢰배당이며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고아대며 인간 쓰레기들을 《증인》으로 섬겨대고 유엔 《북인권사투수》까지 끌어들이며 하면서 미국의 반공화국인권도박책동의 날격대, 하수인으로 가장 악질적으로 발각고 나서고있는것도 바로 박근혜역대이다.

이 모든것은 박근혜가 말하는 《통일대박》이란 뒤에서 벌이는 《전쟁대박》이며 미국의 힘을 빌어 기어이 북침전쟁을 일으키려는 흉심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대박》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이 가져올 결과는 필연고 전쟁참화밖에 없다.

전쟁으로 남조선이 폐허로 되고 기업이 재가루로 되어 사람까지 다 죽은 다음 거기에 무슨 《대박》이 있고 《행세》가 있을수 있었는가.

이러한 비참한 전쟁도 박근혜에게는

《대박》이 되는가 하는것이다.

박근혜는 저들이 제창하는 《통일대박론》이 내외의 비난조소와 배격을 받자 미국상건의 인정이랄도 받아보려고 오바마의 서울행각때 별의별 갖은 추태를 다 부리었다.

그리고는 상건이 한마디 해주는데 너무 감지덕지하여 미국의 지지를 얻었다고 그 얼음장같은 상통에 어물리지 않게 겨겨운 수다를 떨었다.

실로 박근혜와 같은 추악한 매국노, 친미악녀는 이 세상에 없다.

제반 사실은 박근혜가 떠드는 《통일대박론》이 저들의 불순한 정체를 가리우고 여론을 기만하여 반통일대결판란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기 위한 국악무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책동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준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나라의 평화통일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흉악무도한 《체제대결론》, 《체제통일론》이며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론》, 《핵제양론》이다.

집권하여 1년이 훨씬 넘도록 아무 실적도 없이 궁지에 몰린 박근혜가 똘똘같이 《통일대박론》이란것을 내걸고 그 무슨 《효과》를 거두어 몸값을 올려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얻을것은 온 겨레를 비롯한 내외의 더 큰 규판과 망신밖에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박근혜 《정권》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거세차기 타고르고있다.

박근혜는 통일문제를 가지고 민족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리명박역도가 《통일항아리》요 뭐요 하며 신성한 통일문제를 모독하다가 민족의 규판을 받고 수치스러운 운명에 처하였듯이 박근혜 역시 《통일대박》이요 뭐요 하는 도박놀음에 계속 매달리다가는 결국 그보다 더 처참한 신세를 면할수 없다.

박근혜는 도이칠란드의 《라인강반의 기적》을 본따 《강강반의 기적》이요 뭐요 하면서 반통일대결과 북침책동에 미쳐날뛰다가 비명횡사한 예비 박정희의 비극적인 종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범피적 《통일대박론》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으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으로 반드시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 평원

(《로동신문》에서 전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왜 또다시 연기되었는가

외세와 매국노가 어울리는 공에서는 언제나 민족반역의 흥정이 있기 마련이다. 박근혜가 서울을 행각한 오바마에게 애걸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언기한 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원래 미국과 남조선사이에는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었다.

그러나 매국역적 리명박이 《미국과의 동맹의 공간이 흔들린다》느니, 《안보위협이 증대》한다니 하고 아부재기를 친면서 상건에 끈덕지게 애걸하여 그것을 2015년까지 연기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정상화》를 《공약》으로 들고나왔고 그것을 자기의 《외교안보정책의 핵심과제》로 내세웠었다.

하지만 그것은 외세의 지배를 원치 않는 남조선인민들을 기만우롱하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박근혜의 꾀팍치한 위장술책이었다.

진》될것이라고 떠들고 돌아 앉아서 자신은 물론 군부인물들을 내세워 그 시기를 늦추어보려고 미국상건의 옷자락에 더 바짝 매달려왔다. 이번엔 오바마의 서울행각을 계기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또다시 연기된 것은 교묘한 한 민족적자존심도 없는 박근혜의 친미사대매국행위의 산물이다.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또다시 연기하는데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있지도 않은 그 누구의 《위협》을 걸고 시간을 얻어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더욱 완비하는 동시에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플수에 배진 북침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 것이다.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에 대해 《북의 핵과 미사일을 조기에 식별, 탐지, 타격하는 대응전략체계를 갖춘 후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형란도미사일요격체계가 구축될때는 2020년에 가서야 가능하다》고 떠들어댄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실지로 지금 남조선당국

은 군부호전세력을 내세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작전능력제고와 그 누구의 《핵 및 미사일위협》을 떠들며 선제타격체제인 《킬 체인》의 구축과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요격미사일 《메트리오트-3》의 도입 등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번엔 남조선호전광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키 리졸브》이니 하고 떠들어대고 북남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는 《퍼주기》니, 《투명성》이니 하며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기 위해 일마나 퍼논이 되어 날뛰어왔는가 하는것은 이미 잘 알려져 사실이다. 이미 전부터 북남관계에 썩기처럼 초동족사이에서 대결을 고취하며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절경으로 몰아가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해온 미국이다.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으로 몰아가기 위한 미국의 책동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가 하는것은 남조선에서 리명박집권후 반공화국 《제재》소동에 더욱 광분한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위성발사는 공화국의 당당한 자주적권리이며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을 모든 나라의 권리로 규정할 우주조약에도 부합되는 주권행사이니,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아니라 끈질기고 집요한가 하는것은 남조선에서 리명박집권후 반공화국 《제재》소동에 더욱 광분한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 미국은 북남관계개선의 암초 (4) 6. 15 시대를 가로막아 보려고

6. 15통일시대를 더불어 활력있게 전진하던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남조선에서 보수당국의 집권으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혔다.

에초부터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달가워하지 않은 미국은 리명박보수당을 동족대결과 전쟁도발판란으로 더욱 사추했다.

미국이 6. 15공동선언발표 후 종개 발전하는 북남관계에 제동을 걸고보려고 반공화국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그 무슨 《병행추진》이니, 《속도조절》이니 하고 떠들어대고 북남경제협력사업에 대해서는 《퍼주기》니, 《투명성》이니 하며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기 위해 일마나 퍼논이 되어 날뛰어왔는가 하는것은 이미 잘 알려져 사실이다. 이미 전부터 북남관계에 썩기처럼 초동족사이에서 대결을 고취하며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절경으로 몰아가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해온 미국이다.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으로 몰아가기 위한 미국의 책동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가 하는것은 남조선에서 리명박집권후 반공화국 《제재》소동에 더욱 광분한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위성발사는 공화국의 당당한 자주적권리이며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을 모든 나라의 권리로 규정할 우주조약에도 부합되는 주권행사이니,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아니라 끈질기고 집요한가 하는것은 남조선에서 리명박집권후 반공화국 《제재》소동에 더욱 광분한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위성발사는 공화국의 당당한 자주적권리이며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을 모든 나라의 권리로 규정할 우주조약에도 부합되는 주권행사이니,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아니라 끈질기고 집요한가 하는것은 남조선에서 리명박집권후 반공화국 《제재》소동에 더욱 광분한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위성발사는 공화국의 당당한 자주적권리이며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을 모든 나라의 권리로 규정할 우주조약에도 부합되는 주권행사이니,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아니라 끈질기고 집요한가 하는것은 남조선에서 리명박집권후 반공화국 《제재》소동에 더욱 광분한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그러나 2009년 10월 14일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를 문제시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1718호를 조작했던 미국은 2009년 4월에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성명》이라는것을 조작하였다. 그리고는 그에 대한 자위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 공화국이 지하핵실험을 단행하자 또다시 그것을 문제시하는 결의 1874호를 만들어냈다. 한편으로는 북남대결에 환장이 된 리명박보수당에 《제재》소동의 앞장에서 날뛰도록 적극 부추겼다.

또한 미국은 2012년 4월 16일에도 공화국의 위성발사의 평화적성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사코 《장거리미사일발사》로 몰아붙이기 위하여 온갖 비열한 술책을 다하던 끝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의장성명》이라는것을 또다시 조작해냈다.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조작한 이리

한 반공화국 《결의》, 《성명》들은 모두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긴장을 부추기고 전쟁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책동의 산물이다.

2010년 3월의 《천안》호 사건과 같은 해 11월의 연평도포격전도 미국의 음흉한 기도와 배후조종에 의해 일어난것이다.

남조선보수당과 함께 모략적인 《천안》호 사건을 조작한 미국은 《천안》호가 침몰되기 바쁘게 공화국의 군대가 판역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가 하면 남조선당국의 조사과정에 대해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느니 하면서 《대북정책》과 《강경대결》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남조선당국이 《천안》호 침몰사건의 조사과정을 발표하면 그를 비호하는 미국의 성명이 뒤따랐으며 리명박의 《대국민담화》가 발표

되면 그를 두둔하는 미국의 지지립장이 공개되었다. 미국은 워싱턴에서 국무성과 국방성, 중앙정보국의 악명 높은 모략사관들로서 공중이 판을 벌려놓고 필요한 정책공조와 협력유지립장을 꺼리낌없이 공개한것으로도 부족하여 허물만 남아있는 《유엔조사팀》가 사건현지에 대한 《특별조사단》을 파견하게 하는 광대극까지 놀아대게 하였다.

북과 남사이에서 불과 불이 오고간 연평도포격사건 역시 미국이 북남관계를 전쟁절경으로 몰아가기 위해 남조선 호전광들과 사전에 면밀하게 꾸미고 의도적으로 감행한 계획적인 군사적도발행위라는것도 이세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남조선보수당당이 연평도 포격사건의 직접적인 도발자라면서 그뒤에서 남조선호전광들을 군사적도발에 추동한 조종자,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6. 15공동선언리행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통할수 없는 궤변 - 《북핵폐기》론

최근 남조선집권자가 대외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북핵폐기》를 부르짖고 있다. 얼마전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제3차 《핵안전수뇌자 회의》에 참가한 박근혜는 《북의 냉변에는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재앙으로 이어질것》이라고나. 《북의 핵프로그램은 비확산, 핵안보, 핵안전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인만큼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북에 폐대를 돈주었다. 심지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것은 핵무기없는 세상을 만드는것에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핵무기없는 세상은 (그런) 반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그는 도이칠란드에 가서 발표한 《드레즈덴선언》이라는데서도 《하나라도 (한) 반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하루빨리 이루어질수 있도록 북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느니, 《북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에 필요한 국제금융기구가입 및 국제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느니 하는 주체넘은 소리도 하였다. 며칠전 남조선에 날아든 오바마의 축덕공론을 벌리는 자리에서도 박근혜는 《(미국과 함께) 북의 비핵화를 진전시켜나가겠다.》느니, 《북의 병진노선은 실패할수밖에 없다.》느니 하는 악담도 서슴지 않았다. 《북핵폐기》, 박근혜의 입에서 하루가 멀다하게 쏟아져 나오는 이 말방은 지금 가뜰이나 침체한 북남관계를 더욱더 과국의 나락속에 몰아넣고있는 기본요인중의 하나이다.

총고하진대 박근혜는 핵문제의 발생경위와 조선반도비핵화의 본질부터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은 미국의 수습년간 계속된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으로 하여 산생되었다는것은 이제 모를 사람이 없다. 또 북의 핵억제력이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조국강토와 민족의 안녕, 평화를 수호하는 민족공동의 제부, 정의의 보검이라는데 대해서 지각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있다.

박근혜가 민족의 머리에 핵재난을 들씌우려고 하는 미국의 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민족의 핵을 《폐기》하라느니 뉘나 하고 양탈을 부리는것은 핵을 구실로 하여 북남관계를 계속 과국으로 몰아가려는 그의 흥심을 적나라하게 보여 줄뿐이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자면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북침 핵전쟁책동이 중지되어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철수하여야 한다. 식민지하수인에 불과한 박근혜에게 이 모든것을 실현할만 한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조선반도비핵화의 본질도 깨닫지 못하는 지능수준을 가지고 그 누구의 《핵포기》를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소가 웃다 구미미더질 일이 아닐수 없다.

박근혜가 미국상전이 제창한 《핵무기없는 세상》을 조선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체넘은 수작으로 상전에게 아양을 떨었지만 이는 세상물정을 조금도 모르는 얼간망둥이의 추태에 불과하다.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또 사상 처음으로 인류의 머리에 핵재난을 들씌운 나라는 다른데 아닌 미국이다.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진행된 2,000여차례의 핵시험가운데 가장 많은 회수를 차지한 나라도 바로 미국이며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를 가진 나라 또한 미국이다.

이러한 미국이 저들에게 쫓긴 세계의 비난을 막아보려고 《핵무기없는 세상》이라는 빛좋은 개살기를 들고 나왔지만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을 박근혜는 정녕 모른다 말인가.

바로 며칠전에도 오바마행 정부는 핵무기전파방지에 산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저들의 핵무기고고를 개량하고 현대화하는데 쓰일 예산은 대폭 늘여서 국제사회의 거세찬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박근혜가 《핵무기없는 세상》이라는 상전의 속임수를 진작하고 믿었다면 그의 지적능력에 문제가 있는것도 끝나지만 그것을 알고도 《핵폐기》를 운운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박근혜가 《신뢰》라는 조선말의 고유한 의미를 어지럽히면서 《핵문제》를 걸고 북남관계를 과국으로 몰아가는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반민족행위이다.

《비핵, 개방, 3 000》이라는것을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왔던 리명박역도가 집권초기부터 임기말까지 북의 《핵포기》를 전제 조건으로 삼고 사사건건 물고늘어져 북남관계를 최악의 과국상태에 몰아넣은것이 멀리 않은 시기에 있는 일이다. 문제는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속에 력사의 쓰레기장에 처박혔던 《비핵, 개방, 3 000》이 이름만 바꾸어 박근혜 《정권》에 의해 다시 《부활》한것이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가 자기의 《대북정책》이라고 광고하는 《신뢰프로세스》이다.

북남사이에 《신뢰》를 쌓는것을 기본골자로 한다는 이 《신뢰프로세스》의 진짜의미가 무엇인가 하는것은 회수를 차지한 나라도 바로 미국이며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를 가진 나라 또한 미국이다.

이러한 미국이 저들에게 쫓긴 세계의 비난을 막아보려고 《핵무기없는 세상》이라는 빛좋은 개살기를 들고 나왔지만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을 박근혜는 정녕 모른다 말인가.

바로 며칠전에도 오바마행 정부는 핵무기전파방지에 산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저들의 핵무기고고를 개량하고 현대화하는데 쓰일 예산은 대폭 늘여서 국제사회의 거세찬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박근혜가 《핵무기없는 세상》이라는 상전의 속임수를 진작하고 믿었다면 그의 지적능력에 문제가 있는것도 끝나지만 그것을 알고도 《핵폐기》를 운운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박근혜가 《신뢰》라는 조선말의 고유한 의미를 어지럽히면서 《핵문제》를 걸고 북남관계를 과국으로 몰아가는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반민족행위이다.

《비핵, 개방, 3 000》이라는것을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왔던 리명박역도가 집권초기부터 임기말까지 북의 《핵포기》를 전제 조건으로 삼고 사사건건 물고늘어져 북남관계를 최악의 과국상태에 몰아넣은것이 멀리 않은 시기에 있는 일이다. 문제는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속에 력사의 쓰레기장에 처박혔던 《비핵, 개방, 3 000》이 이름만 바꾸어 박근혜 《정권》에 의해 다시 《부활》한것이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가 자기의 《대북정책》이라고 광고하는 《신뢰프로세스》이다.

북남사이에 《신뢰》를 쌓는것을 기본골자로 한다는 이 《신뢰프로세스》의 진짜의미가 무엇인가 하는것은 회수를 차지한 나라도 바로 미국이며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를 가진 나라 또한 미국이다.

이러한 미국이 저들에게 쫓긴 세계의 비난을 막아보려고 《핵무기없는 세상》이라는 빛좋은 개살기를 들고 나왔지만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을 박근혜는 정녕 모른다 말인가.

바로 며칠전에도 오바마행 정부는 핵무기전파방지에 산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저들의 핵무기고고를 개량하고 현대화하는데 쓰일 예산은 대폭 늘여서 국제사회의 거세찬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박근혜가 《핵무기없는 세상》이라는 상전의 속임수를 진작하고 믿었다면 그의 지적능력에 문제가 있는것도 끝나지만 그것을 알고도 《핵폐기》를 운운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박근혜가 《신뢰》라는 조선말의 고유한 의미를 어지럽히면서 《핵문제》를 걸고 북남관계를 과국으로 몰아가는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반민족행위이다.

《비핵, 개방, 3 000》이라는것을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왔던 리명박역도가 집권초기부터 임기말까지 북의 《핵포기》를 전제 조건으로 삼고 사사건건 물고늘어져 북남관계를 최악의 과국상태에 몰아넣은것이 멀리 않은 시기에 있는 일이다. 문제는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속에 력사의 쓰레기장에 처박혔던 《비핵, 개방, 3 000》이 이름만 바꾸어 박근혜 《정권》에 의해 다시 《부활》한것이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가 자기의 《대북정책》이라고 광고하는 《신뢰프로세스》이다.

북남사이에 《신뢰》를 쌓는것을 기본골자로 한다는 이 《신뢰프로세스》의 진짜의미가 무엇인가 하는것은 회수를 차지한 나라도 바로 미국이며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를 가진 나라 또한 미국이다.

이러한 미국이 저들에게 쫓긴 세계의 비난을 막아보려고 《핵무기없는 세상》이라는 빛좋은 개살기를 들고 나왔지만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을 박근혜는 정녕 모른다 말인가.

바로 며칠전에도 오바마행 정부는 핵무기전파방지에 산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저들의 핵무기고고를 개량하고 현대화하는데 쓰일 예산은 대폭 늘여서 국제사회의 거세찬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박근혜가 《핵무기없는 세상》이라는 상전의 속임수를 진작하고 믿었다면 그의 지적능력에 문제가 있는것도 끝나지만 그것을 알고도 《핵폐기》를 운운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박근혜가 《신뢰》라는 조선말의 고유한 의미를 어지럽히면서 《핵문제》를 걸고 북남관계를 과국으로 몰아가는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반민족행위이다.

## 대학광대극의 주범이 빠져나갈 길은 없다

최근 남조선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정보원이 군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예산이 인터넷에서 《정치댓글》 작업을 벌인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정보활동비목으로 제공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야당의원이 폭로한데 의하면 정보원은 2011년 42억원의 예산을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했는데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에 지원받은 예산은 전년에 비해 무려 40%나 증가한 것이다. 정보원은 이 돈으로 인터넷에서 《정치댓글》을 쓰고 퍼뜨린 군사이버사령부의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 100여명의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정보활동비목으로 제공과 직책에 따라 수십만에서 수백만원씩 현금으로 개별 지급하였다. 이로써 현 집권자의 당성이 그야말로 정보원의 모략과 날조로 이루어 졌다는것이 더욱 명백히 증명되었다.

문제는 박근혜가 정보원 원장 남재준을 왜 감싸고있

는가 하는것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박근혜가 남재준의 덕을 단단히 입은 데 있다. 알려진것처럼 남재준은 현 《정권》의 출현과 함께 2013년 3월 정보원 원장으로 된자로서 2012년 정보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사건과는 무관한 인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따지고보면 남재준은 박근혜의 《대통령당선》을 적극적인 후원자로써 리명박 《정권》에 이어 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었다. 더욱이 그는 정보원의 《대선》 개입사건으로 현 《정권》의 비법성이 커지자 정보원의 죄악을 흑막속에 물어버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남재준이 불법 《대선》 사건의 주요범죄자인 원세훈을 《선거법위반혐의》가 아니라 일반적인 《회물수수혐의》로 몰아 구속수사하게 하고 불법 《대선》 사건을 수사하던 체동욱경찰 총장을 그 무슨 《혼외자식》설에 걸어서 사임하게 한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더우기 그는 불법 《대선》 사건의 진상을 가리우기 위해 북남수사부들의 담화록까지 공개하는 천하에 물도 없는 망동짓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는가 하면 최근에는 서술시공무원간첩사건이라는것까지 조작하여 반북대결로 민심의 여론을 기만하려고 날뛰었다.

정보원이 불법비법으로 저지른 《정치댓글》의 도움으로 겨우 권력을 차지한 박근혜에게 있어서 자기의 불법적인 당성을 정당화시

키는 남재준이야말로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삼살개 가 아닐수 없다. 이런것으로 하여 박근혜는 온갖 특대형범죄를 일삼고있는 남재준을 파면시킬때 대한 각계의 한결같은 요구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끼고들며 적극 두둔하고있는 것이다.

지금 남재준은 려객선침몰사고로 온 남조선이 비애와 슬픔속에 잠겨있는 기회를 틈타 자기가 저지른 온갖 죄악에서 빠져나오려고 획책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다. 남재준이 어떤 오그람수를 써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남조선 각계가 이번의 폭로로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정보원이 지원한 예산이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정치댓글》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정보원 원장 남재준의 증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그 진상의 목적을 가짜하고 그를 단호히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는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반북대결과 모략을 일삼는 정보원이 존재하고 남재준이 원장직위에 계속 틀고있었던 한 남조선에서 무슨 불법비법들이 발생했는지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많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독재권력의 강화를 위해 반북대결을 앞장서고 고취하고 온갖 모략과 날조를 일삼는 정보원은 해체되어야 하며 그 수장인 남재준은 단호히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본사기자 김응철

## 지성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김영일

지성이 어머니 동해기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북녘의 한 소녀가 인사를 드려요 제 이름도 지성이예요 어머니의 딸과 성마저 똑같은 문지성

사랑하는 딸을 찾으며 지금도 눈물을 흘리실 지성이 어머니 갈수만 있다면 어머니곁으로 한달음에 달려가고싶어요

바다보다 더 큰 슬픔을 안은 가슴에 한줄기 따뜻한 온기라도 더해주고싶고 어머니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 저의 이 작은 손으로 씻어드리고싶어요

한푼두곤 모은 돈 그중에서 어머니고생으로 절은 돈이라고 지성이는 안 가졌다 했지요 수학여행을 그 딸이 너무나 대견하고 기록해 어머니는 어서 갔다오라 등을 떠밀고

자식을 위한 고생물 락으로 삼는 어머니사랑 어찌 알았겠어요 그 사랑으로 떠밀어보낸 자식 영영 살아돌아올수 없다는것을

남해가 진도기술에서 피같은 눈물을 흘리실 어머니 동해나 남해나 다 우리 나라 바다인데 어쩌면 동해기술과 남해기술 펼쳐진 현실은 판관 다른가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떠나는 날 품에 안아주며 나의 어머니 행복의 눈물 지을 때 아직도 바다에서 건지지 못한 지성을 목놓아 부르고부르며 어머니 피눈물을 흘리셨겠지요

통일이 되었더라면 지성이도 여기로 야영을 왔을걸 나와 함께 기쁨의 날과 날 함께 보냈을걸 다른 나라 아이들도 오는 곳인데 왜 한형제 남북의 아이들만 오지 못하나요

기쁨이 넘쳐나는 동해의 기술에서 눈물로 씻어든 진도의 기술 생각하며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요 남북의 아이들에게 말하고싶어요 통일, 통일을 이루고 행복의 기술 동해의 궁전에서 우리 서로 만나요 친딸처럼, 친형제처럼

## 반인민적정치, 황금만능의 썩은 세상이 빚어낸 대참사

얼마전 남조선에서 일어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본사기자는 남조선정세전문가 량세철과 대담을 가졌다.

기자: 대형객선 《세월》호참사건이 지금도 남조선에 뒤흔들고있고있다. 한겨레에 수백명의 희생자를 낸 이번 대규모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량세철: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58분경에 남조선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앞바다에서는 제주도로 가던 려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배에는 476명이 타고있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172명밖에 안되었다. 나머지는 모두 배와 함께 바다에 수장되어 목숨을 빼앗겼다. 남조선에서 대형객선이 침몰한것은 이번 까지 모두 네번째이며 《세월》호의 침몰은 1993년 전라북도 부안앞바다에서 발생한 한서해 《체리》호침몰사건(사망자 292명)이후 최악의 참사이다.

기자: 어떻게 이런 특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량세철: 려객선의 침몰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설이 나돌고있지만 배가 선회하다가 짐이 쏠리면서 기울어져 침몰했다는 설이 우세하다. 그런데 따지고보면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이번 대형참사의 주인공인 《세월》호는 일본에서 근 20년동안 리용한 중고품이다. 남조선의 선박회사들에서는 려객선건조는 자금이 많이 드는 《밀지는 장사》라고 하면서 돈벌이가 잘되는 화물선만 대체로 건조하고있다. 이런 데로부터 해운회사들에서 리용하는 려객선은 주로 다른 나라들의것을 사다가 싸웠는데 새것은 비싸다고 하여 적은 돈을 들여 중고품만 들여왔다. 그리하여 현재 남조선에서 운영되고있는 170여척의 려객선중 자체로 만든 려객선은 불과 3척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본이나 유럽나라들에서 중고품으로 들여온 것들이며 그것마저도 60%가 수명이 15년이상 지난 과고철들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리용하고있던 자본가들이 리용추구를 위해 항행의 안전을 위한 초보적인 규정도 잘 지키지 않고있다. 《세월》호도 바로 화물선이 아닌 려객선에 짐을 초과로 적재했고 그것을 단단히 고정하지 못한데 사고요인이 있는것 같다고 남조선의 전문가들은 분석하고있다. 즉 사람의 생명안전보다 돈을 앞세우는 자본의 탐욕에 의해 이번 침몰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할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 사고가 나자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구조대가 인차 도착하니 담비지 말라고 하고는 저들만 먼저 탈출하였다. 또 사고발생후 배가 완전히 침몰되기까지는 무려 2시간. 이 시간동안 수많은 생명들을 얼마든지 구원할수 있었겠지만 구조에 동원된 잠수부들자체가 목숨이 두꺼워 반허 지쳐보면서 선동바다에 뛰어들지 않은 사실, 해경들도 《인명부러》라는 말이 아니라 선박을 구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중언부언한 사실 등 시간이 갈수록 낱알이 드러나는 사실은 부들은 이번의 참사를 《인재》로 보기에 충분한 근거를 지어주었다.

기자: 지금 남조선에서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무능한 정부》에로, 박근혜에게로 쏠리고있지 않나.

량세철: 그렇다. 지금 서울과 경기도, 전라남도등 포함하여 남조선전지역에서는 《정부는 살인마》, 《무능한 정권, 아이들을 살려내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등의 프랑카드들을 들고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시위를 벌이고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이렇듯 《정부》에로 쏠리는데는 그럴만한 리유가 있다.

우선 사고발생후 《정부》의 초기대응이 매우 허술했고 그로 인해 살릴수 있는 아까운 생명들을 무더기로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조선당국은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사태수습에 달라붙었다고는 하지만 통일적인 장악과 수습체계를 세우지 못해 구조작업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렸다. 사고

해역에서 중앙본부외에도 지방과 해양경찰, 군대가 저마다 나서서 주인행세를 하는가 하면 저마끔 사고대책본부들을 현지에 차려놓고 상황을 발표하는 늘음을 하는 말이 아니라 선박을 구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중언부언한 사실 등 시간이 갈수록 낱알이 드러나는 사실은 부들은 이번의 참사를 《인재》로 보기에 충분한 근거를 지어주었다.

기자: 결국 이번의 대형참사를 놓고서도 남조선사회의 부패성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보나.

량세철: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반인민적외 썩은 정치, 인간의 생명과 권리를 돈으로 귀중히 여기는 황금만능의 썩은 사회가 빚어낸 비극적인 대참사이다.

《세월》호의 침몰은 그대로 통째로 무너져버리는 남조선사회의 추소판이다. 우리는 《세월》호참사를 통해서도 남조선사회야말로 황금만능의 사회, 극도의 개인주의가 인간의 생명을 마음껏 헤치며 범람하는 썩어빠진 사회라는것을 똑똑히 느끼게 된다. 아울러 인간의 생명을 제일 귀중히 여기며 그 삶을 아름답게 꽃피워주고 염도를 높이고, 파괴국부총리를 제물로 내건 《총리예고경질론》과 정계내부맹

## 인원불모지에서 빛어진 재난

적십자라고 하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있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에서 죽가 마뭇든 하는 려객선 《세월》호침몰사고를 놓고 적십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사람들의 질병예방과 치료로부터 건강증진, 여러가지 재난에 대처한 구조와 피해자들의 생활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적십자의 인도주의적사명이고 활동이다.

그런데 남조선에서 한명도 아닌 수백명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려객선침몰사고와 구조상황을 놓고 경악을 금할수 없었다. 사고발생으로부터 구조대책과 생존자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기

대처능력은 《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끔찍한 려객선침몰참사는 분명 단순한 인재가 아니라 위풍과 기만, 려객선과 표리부동기 팔수예벤 남조선집권자의 부패무능이 가져온 필연적인 특대형 참사였다. 남조선인민들이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있다. 국민모두가 《세월》호 탑승자들과 같이 화염을 느끼며 개탄하고 죽음의 땅에서 탈출하겠다고 울분을 토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언론들과 사회여론도 《세월》호침몰참사는 《후진국형참사》, 남조선 《정부》는 학생들이 배안에

서 죽는것을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다. 《정부》가 참사 대응은 달팽이처럼, 실종자 가족들의 시위집안은 번개처럼 한다고 비난하는것도 당연하다. 명백하건대 남조선인민들이 당하고 세계가 지켜보는 지금의 특대형참사는 재난대미와 관리능력이 너무도 부실한탓에 한명한명의 목숨이라도 더 앗아간 인원불모지의 구조참사이기도 하다.

나는 려객선침몰참사를 대하는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이고 비인도주의적인 처사에 치웃는 격분을 금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김철수

## 책임회피는 아이들의 두벌죽음이다

한낱한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남조선의 려객선침몰사고소식은 지금 우리 대학 전체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치웃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어쩌면 남조선당국이 그러도 무능하고 매정할수 있던 말인가.

수백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제대로 된 구조대책 없이 바다에 수장시켰으니 남

조선당국자들이야말로 엄벌을 받아야 할 범죄집단이 아닐수 없다. 더욱이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것은 책임회피에 난 몰두하는 집권자의 처사이다. 사고책임의 장본인인 그가 낱가지도 두려워도 분수가 잊지 못해 무슨 체면에 《책임》이요 뉘오 하는가 하는것이다.

책임회피는 유가족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인 동시에 죽은 아이들에 대한 두벌죽음이나 같다.

박근혜가 한조각의 량심이라도 있다면 책임을 남한데 따돌릴것이 아니라 자신이 민심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학생 김철명

## 《세월》호 대참사를 초래한 《정부》를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